논어 14편 헌문 43장 · 원문·풀이

子張曰：「書云：『高宗諒陰，三年不言。』何謂也？」子曰：「何必高宗，古之人皆然。君薨，百官總己以聽於冢宰，三年。」

독음 · 자장왈 서운 고종량암 삼년불언 하위야 자왈 하필고종 고지인개연 군훙 백관총기이청어총재 삼년

쉬운 풀이(요약) · 고종의 삼년상 동안 침묵은 옛 임금들의 상례였다. 관리들은 재상의 지휘 아래 맡은 일을 처리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張 베풀 장 장 / 曰 가로 왈 / 書 쓸 서 서

云 이를 운 운 / 高 높을 고 고 / 宗 마루 종 종 / 諒 믿을 량 량

陰 음기 음 음 / 三 석 삼 삼 / 年 해 년 년 / 不 아닐 불

言 말씀 언 언 / 何 어찌 하 하 / 謂 고할 위 위 / 也 어조사 야

必 반드시 필 필 / 古 옛 고 고 / 之 갈 지 / 人 사람 인

皆 모두 개 개 / 然 불사를 연 연 / 君 임금 군 / 薨 죽을 훙 훙

百 일백 백 백 / 官 벼슬 관 관 / 總 꿰맬 총 총 / 己 자기 기 기

以 써 이 이 / 聽 들을 청 청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冢 무덤 총

宰 주관할 재 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